



이기운
(현)워드스트리 대표

시경에 이르기를 높은 산은 우뚝히 보고 큰 일은 행(行)한다고 했다. 이에 준거하여 사람이 (만나는) 일은 행사(行事)라고 한다. 세미나를 하든지 단순 모임을 갖든지, 모든 행사는 시간과 장소가 예약된 순간부터 준비가 시작된다. 골프도 함께 할 사람이 정해져서 부킹을 하면 (그것이 일주일 후든 혹은 열흘 뒤이든) 그 즐거움이 시작된다.

골프 부킹은 한국사회에서는 탁월한 능력이다. 활동적이고 대인 관계가 원만한 사람들이 부킹을 잘 한다. 골프장에서 남아도는 시간 얻어내는 것은 부킹이 아니다. 되도록 가까이 있는 골프장에서 원하는 날씨와 운동하기 좋은 시간을 얻어내는 것이 부킹 능력이다.

골프장이 많아졌다고 하나 골든타임에 부킹한다는 것은 여전히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렵다. 국회의원이다, 국세청이다, 지방자치단체다, 별별 끝발있는 사람들이 권력이나 직함, 재력으로 좋은 시간을 다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회원조차도 좀체 얻어내기 힘들다.

9월 초를 기준으로 하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아침 7시부터 9시 사이 티업이 황금시간대라 할

수 있다. 오전에 골프를 하고 오후나 저녁시간은 가족과 보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아직은 한낮의 태양이 뜨거운 이유도 있다.

평일의 경우 역시 누구나 원하는 황금시간대가 있기 마련이어서 서로 그 시간을 달라고 아우성이다. 골프장이 많아져도 서울 근교에서의 골든타임 티업은 끝발 싸움이요 능력 경쟁일 수밖에 없다. 골프는 부킹이 된 순간부터가 시작이다. 출정자들은 온갖 상상의 날개짓을 한다. ‘이번엔 정말 잘 쳐봐야지.’하고 자신을 추스르다 보면 안 나가던 사람도 연습장을 찾고, 연습하는 사람은 보다 강도를 높인다.

만날 터지기만 하던 것을 멋지게 만회하는 (그래서 그놈 코를 낱작하게 해주는) 상상에 젖어 보기도 하고, 행운의 훌인원이나 이글을 기록하는 환상에서부터 통 퍼트를 성공시켜 동반자를 놀라게하거나, 티샷 한 볼이 2단 3단 추진력을 받아 힘차게 솟으며 목표 지점까지 정확하게 날아가 탄성을 자아내게 하는 등 예술성과 행운이 겹쳐 기쁨이 되는 장면들을 그려 보면서 그 날이 왔으면 하고 손꼽아 기다리게 된다.

날씨가 도와주기를 빈다. 적당히 구름도 끼고 바람은 있으나 마나 하고, 기온은 전형적인 봄이나, 가을 날씨면 최적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희망이 고분고분 이루어질까? 태풍이 온다거나 짙은 안개나 비바람이 예보되면 이 삼일 전부터 일기 뉴스에 눈길을 집중하며 심각한 고민에 빠진다. 비바람 속에서 골프를 쳐본 사람은 다시 치고 싶지 않을 수 있다.

하루 전까지 기다려 그날의 날씨가 좋아질 기미가 없으면 평계를 찾는 사람들이 생겨난다. 몸이 아프다, 갑자기 일이 생겼다 등은 이유가 안 된다. 어머니가 쓰러지셨다, 아버지가 입종하시

려고 한다 등등 엄청난 거짓말을 (그것도 안 써먹은 경우 한 번만 가능하다) 만들어내기도 한다. 그래도 골프 약속은 ‘자기 사망’ 외에는 지켜야 한다는 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부킹을 한 사람의 불안과 고민은 더더욱 크다. 악천후든 천재지변이든, 일껏 부킹을 해 놨는데 임박해서 한 명이라도 결장하면 그것은 ‘실망’ 정도가 아니다. 자신 그 놈하고 안한다고 이를 갈 정도가 된다. 두명이 취소해서 땀방을 구해야 한다던가 하는 비침한(?) 입장이 되면 ‘다시는 부킹하지 않고 불러주는 데만 가자.’고 결심하고 또 다짐하기도 한다.

골프는 보통 3~4인으로 한 조를 이루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익혀서 그런지 골프를 거듭 할수록 그 수가 적당한 것 같다. 차를 마실 때와 마찬가지로 골프를 할 때도 사람 수가 적어야지 많으면 소란스러워 아취(雅趣)를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다도(茶道)에서 이야기하는 다인의 자세와 골프에서 요구하는 골퍼의 자세는 정말 똑같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일본의 명문 골프장들은 다도 용어를 흘 이름으로 명명하는 사례가 많다. 일기일회(一期一會)나 천일유흔(天日有魂) 같은 용어는 어디서나 볼 수 있다. 일회일기는 일생에 한 번뿐인 만남이니 정성은 다하라는 뜻이고 천일유흔은 하늘이 보고 있으니 정직해야 한다는 뜻이다.

겸손한 자세를 가르치는 것도 같다. ▲어느 장소에서나 조화를 해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자연에 대해 경건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심성이 깨끗해야 하고 ▲겸손하게 자기를 늘 반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 등이다.

‘불완전을 사랑하라’는 가르침도 골프란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하에서 가능한 한 무언가를 이뤄보려는 시도라는 해석에서 다도의 가르침이

골프 유머가 된 것이고, ‘서로 잘하는 것을 칭찬하기’나 ‘제자비 놓기’ 따위도 모두 (이미 오래 전에) 다도 교육에 들어있는 생활규범을 골프에 응용한 것이다. 다도에서는 예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을 기본이 안 됐다하여 무차구차(無茶口茶) 차가 뭔지 모르고 입으로만 마시는 사람이란 뜻으로 일종의 욕이다)라하는데 골프도 마찬가지 아닐까. 예의가 무시되면 객기(客氣)거나 돈지랄(?)이지 골프가 아니다.

또 차는 혼자 마시는 것을 선(禪)이나 신기(神氣)라 하고, 둘이 하는 자리를 승(勝)이라 했다. 3~4인은 취미(趣味)이고 그 이상이면 범범(泛泛)할 뿐이어서 베푸는(施) 것이라 했다. 차라는 글자만 골프로 바꿔 다시 읽어보자.

‘골프는 혼자 하는 것을 선(禪) 또는 신기(神氣)라 하고, 둘이 하는 것을 승(勝)이라 한다. 3~4인은 취미(趣味)이고 그 이상이면 범범(泛泛)할 뿐이어서 베푸는 것’이니 순타(順打)할 뿐이다.’… 절묘하게 같지 않는가.

아마추어 골프가 3~4인을 한 조로 하고 권위 있는 프로 대회가 2인 한 조(여자프로는 3인이 한 조가 되기도 하지만)로 경기하는 것은 우연한 규정이 아니다. 둘이 할 때의 승(勝)에는 남을 이기려는 자는 반드시 자신을 먼저 이겨야 한다(欲勝人者必先自勝)는 교훈이 달려 있기 때문에 자기 스코어를 스스로 적게 하는 것이다.

다도와 골프는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조화 ▲서비스면 마음에서 생겨나는 신비스런 사랑의 힘 ▲낭만주의적 질서관을 논하며 몸에 익힐 때 예술이 된다. 부킹에서 시작되는 골프의 매너는 그 세련되고 책임감 있게 다듬어진 정신을 일상에 반영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어쨌든 골프의 즐거움은 부킹된 순간부터 시작된다.